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우리도 맹인인가

(요 9:39-41)

이종윤 원로목사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100% 좋은 것도, 또 100% 나쁜 것도 없습니다. 좋은 일 가운데는 반드시 나쁜 부분이 있고, 나쁜 가운데도 좋은 부분이 조금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좋은 일도 절대적으로 나쁜 일도 없습니다.

1.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요 9:39)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맹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에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함이로다”(요 12:47)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째서 두 가지의 상반된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두 말씀은 영적인 맹인들에게는 다시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려는 말씀인 것과 동시에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볼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둠을 해매는 맹인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자들에게 가장 큰 원수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믿든가 아니면 거절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어떤 선한 일도 온전히 선하지 않고 어떤 악에도 조금은 선이 섞여있지만 예수님께로 향한 길은 절대적인 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눈을 뜬 자는 같은 자리에 있지만 앞으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양쪽 길로 가고 있습니다.

2. 영적인 맹인

“우리도 맹인인가”(요 9:40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맹인이라서 네가 보게 하려고 왔다는 말이냐”고 반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 앞에서 이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가? 내가 맹인인가? 내가 쓸모없는 인생인가?” 하면서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치심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단정하였을 뿐 아니라 비웃기까지 하고 있습니다(요 8:48, 10:20). 그들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내다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으므로 심판이 올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메시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스스로 책임을 질 만큼 충분한 영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남아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맹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3. 구원에 이르는 순종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 주님 앞에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오셔야 할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분을 거절했지만 눈먼 자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이 없으면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으므로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성공적인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 중의 괴수이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사람이고 소망도 가치도 없는 사람이오니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크신 은혜로 눈을 뜬 자와 같습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겸손히 받아들인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매우 힘든 명령을 복종했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여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어떤 자리에 모시고 있습니까? 혹시나 예수님은 옆으로 비켜놓고 우리를 끼리만 즐겨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 멀었다가 눈을 뜬 사람처럼,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로 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홍해작전 은혜롭게 진행 중

6. 6(월) - 6. 18(토) 새벽 5시 30분 - 6시
 특별새벽기도회 : 6. 20(월) - 6. 25(토) 새벽 5시 - 6시 / 강사 : 손달익 목사

지난 6월 5일(주일) 홍해작전발대식을 시작으로 2022 홍해작전이 시작되었다.

6월 6일(월), 2022 홍해작전 첫 새벽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개인 앞에 놓인 홍해, 가정의 홍해, 교회와 국가의 홍해를 위해 기도하였다.

6. 18(토)까지 새벽 5시 30분 - 6시까지 대면 및 영상 중계로 드러지며 6. 20(월) - 6. 25(토)은 새벽 5시 - 6시까지 손달익 목사를 강사로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2022 홍해작전 기간(6. 6 - 6. 25) 중에 전도자가 초신자를 새벽기도회나 주일예배에 초청하여 참석한 경우, '2022 홍해작전 전도 초청자 카드'를 작성하여 본당 2층 안내데스크 '전도 초청자 카드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란다.

또한 2022 홍해작전 4행시를 공모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 2022 홍해작전 4행시 -

- 주제 : 홍해작전, 새벽기도, 소망예수
- 대상 : 전교인
(교육위 소속 주일학교 별도 시행)
- 응모 기간 : 특별새벽기도기간(6/20-25) 예배 전후 30분
- 1인당 개수제한 없이 자유롭게 응모 가능
- 제출 방법 : 본당 2층 로비 응모함에 제출
- * 교구, 성명, 연락처(전화) 표시 요망
- 시상 발표 : 7월 3일(주일) 순례자 게재 및 수상자에게 개별 전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김재용 김요한 이상민 한지원 심중규 문영훈 이준우 정건 유성근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심준규 허성강 백승규 장하랑 최윤학 이강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2022년 고난주간 금식헌금 이웃에게 나누다

교회는 지난 고난주간에 드러진 금식헌금을 강남구에 등록된 기관 3곳에 '서울교회' 이름으로 전달했다.

'강남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돌봄과 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들의 진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아동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곳이다.

'아해하제'는 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강남구청 내 등록되어 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이다.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강남구 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생활지원활동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다.



빚고 살았습니다!



손달익 담임목사는 지난 5월 17일(화), 31일(화),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장기적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심방하였다.

- ① 이응선 원로장로 ② 이찬호 집사와 최정순 권사, 박영숙 사모
- ③ 광숙 권사와 손달익 목사, 박영숙 사모

기도의 불씨가 되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김애리 권사
(2022 흥해작전
봉사분과장)

창립 초창기 흥해작전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기치 아래 갱신과 부흥을 위한 도전들로 채워졌고, 새 예배당 건축이 가시화되던 90년대 후반엔 “기도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며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헌신과 기적이 잇따랐던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1997년 흥해작전 마지막 날엔 새 예배당 건축을 몇 년간 끈질기게 반대하던 인근 주민들의 마음이 하룻밤 사이 눈 녹듯이 변해 반대를 철회했던 기적을 그 당시 성도들은 목도했습니다.

갈급함과 간절함과 믿음으로 구한 흥해작전의 뜨거운 기도로 세워지고 부흥하고 버텨온 것이 서울교회입니다. 환난 날 기도회로 모여 울부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곧 승리를 안겨주시리라는 확신과는 반대로 모든 재판들이 불리하게 나오면서 우

리의 기도는 회개기도로 바뀌었고 더 낮아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혹독한 회개의 기도 터널을 지나자 금홍로 위로하시고 교회 문을 다시 활짝 열어주신 주님. 타국 땅에서 기도회를 할 때 항상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 교회 분쟁과 나라의 혼란을 겹쳐 겪으며 그간의 내 기도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상투적이고 습관적이었는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무관심하고 모르니 절실하거나 구체적이거나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 일이 성경에 다 적혀 있어 결론까지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음에도 삶과 연관시켜 분별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약하고 번덕스럽고 죄성이 남아 있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루치를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선순위와 시간 배정이 대부분 내 형

편에 맞춰져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흥해를 건너게 해 주셨음에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광풍으로 배가 요동칠 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처럼, 지나온 나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음에도 그 때의 감격과 감사를 무시로 잊어버리며 살게 됩니다. 흥해작전이 시작된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피폐해진 영과 나태해진 육신을 일으켜 회개하며, 지치고 힘들었던 팬데믹을 넘어 교회부흥을 위해, 대한민국이 화합과 안정을 위해, 받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 여호와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꿈꾸며.



김치수 집사 (스데반회 총무)

지난 6월 6일(월) “흥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팬데믹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흥해작전 첫 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아가페타운에서 스테반회 체육대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잘 마쳤습니다. 아가페타운으로 가는 시원하게 뚫린 경춘고속국도 차 안에서 전날 밤 내린 비로 깨끗하게 씻겨진 산천초목을 보고 맑은 공기를 느끼며 오랜만에 나들이 하는 기분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쾌했습니다.

8시 30분. 손달익 담임목사님의 기도로 체육대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신청한 참석 인원은 60명이었다가 출발 전에는 90명으로 늘어났고 실제 아가페타운 참석인원은 1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수환 집사님의 인도로 국민체조로 시작된 체육대회는 그동안 짓눌렸던 가슴과 어깨

를 활짝 펴며 심호흡으로 정신을 맑게 하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족구시합에서는 부목사님과 장로님으로 구성된 ‘당회원 팀’의 헤딩과 발차기 실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3개의 ‘스테반 회원 팀’도 이에 질세라 최상의 컨디션으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득점 순간과 절묘한 슈팅이 있을 때마다 응원단과 관중의 박수갈채와 함성이 온 체육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스테반 회원들이 고기를 먼저 숯불에 구워 숯불 향을 입힌 다음 구워내는 삼겹살과 권사회에서 준비하신 반찬과 채소, 그리고 수박을 곁들인 점심 식사는 어느 음식점에서도 맛볼 수 없는 일품 점심이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호산나대학 전문 바리스타가 만들어내는 수제커피로 커피타임을 마치고 단체사진을 촬영한 후에 강당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조별, 개인별 참여 선수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을 때마다 상을 받는 기쁨과 환

희, 그 광경을 지켜보는 회원과 가족들의 행복한 함성과 박수갈채가 강당을 꽉 채웠습니다. 담임목사님도 예외는 아니어서 상을 받아 들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9)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담임목사님의 폐회기도로 모든 체육대회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 열린 스테반회 체육대회는 서울교회의 부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그동안 잠들어있던 스테반 회원들의 영혼을 되살리고 깨우는 감격의 촉매제가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스테반 회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런 모임을 가을에도 갖자는 제안을 귀담아듣고, 임원회의에 올려 서울교회의 회복, 부흥과 성장, 그리고 스테반회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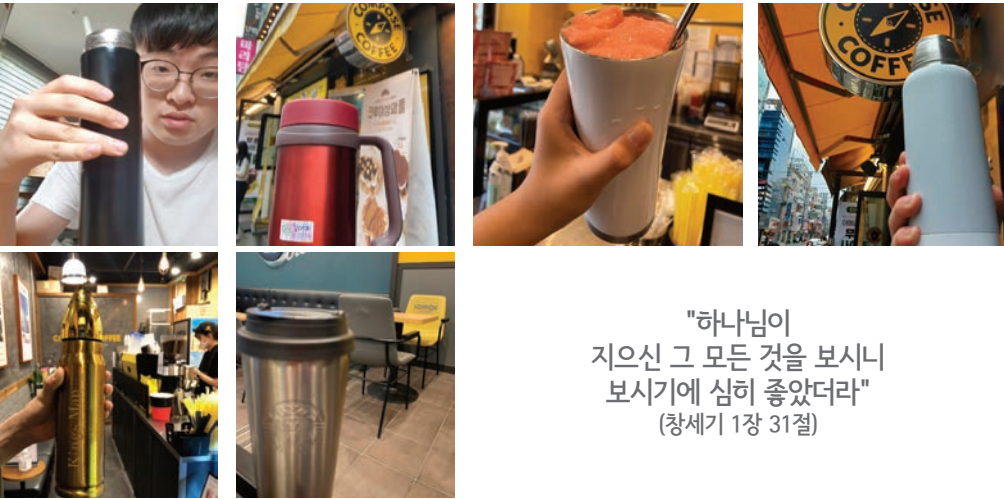
한상욱 집사
(고등부 부장)

서울교회 중·고등부는 6월 5일 환경 주일을 맞이하여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우리의 생활 공간인 지구를 보호하고 잘 관리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닌 탐욕스런 존재가 되어 자신의 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여 오늘날 심각한 환경 문제와 기상 이변을 초래하였습니다.

다. 서울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먼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생활 공간 지구를 창조하여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의 걸음을 내딛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환경 파괴 중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인 플라스틱과 종이컵의 과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미 지난 겨울 수련회에 참가 선물로 받은 텀블러를 사용하여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는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이 운동에 활발히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자그마한 생활 속 실천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친환경 노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원 채용 공고 - 경리(회계) 담당, 식당 담당 -

올해 말 정년이 되는 교회 경리(회계) 담당자의 후임 직원과 교회 식당에서 상시 근무할 직원을 미리 채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직원의 근무 자격과 조건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6. 24. 금요일 미래한국 창간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자유·정의·평화상을 수여한다.
6.26.주일 오후 5시 30분 명성교회당에서 '군선교연합회창립50주년기념 회년대회'에서 이종윤 원로목사가 공로패를 받는다.

■ 득녀 : 8교구 안충현 집사 · 최인애 집사 가정 쌍둥이 득녀
(9교구 안재선 집사 · 문수자 권사 손녀
9교구 최명남 집사 · 김지은 권사 외손녀)

■ 식사 제공 : 교회 제공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6월13일	월	욘 37:1-40:2		행 12-16	
6월14일	화	욘 40:3-42:17		행 17:1-21:26	
6월15일	수	시 1-7		행 21:27-28:31	
6월16일	목	시 8-14		롬 1-6	
6월17일	금	시 15-18		롬 7-11	
6월18일	토	시 19-25		롬 12-16, 고전 1-3	
6월19일	주일	시 26-31		고전 4-11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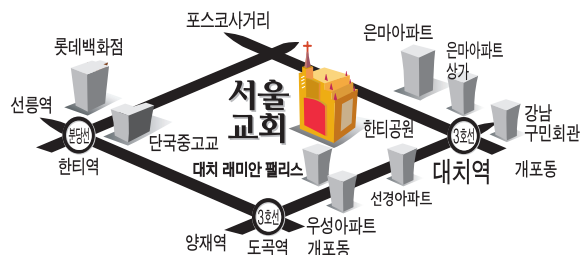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홍해작전 새벽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는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십자가 복음의 증인 되게 하소서.
2. 2022년 홍해작전을 통해 팬데믹을 넘어 부흥으로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3.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된 대한민국 이루어져 세계 선교에 더욱 쓰임 받는 나라 되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I 부 예배	오전 11시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